

못새가 ‘봄을 알리네’

—연변지역 여러 습지에 철새들 날아든다



립춘과 우수 절기가 지나자 얼음과 눈이 점차 녹고 봄도 가까워지면서 철새들이 북방으로 날아와 먹이를 찾고 서식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 안도현 이도백하진의 취호(翠湖) 수역에서 세심한 시민들과 사진애호가들은 수백마리의 야생오리의 흔적을 발견했다. 야생오리들은 먹이를 찾아 수면에 머물거나 물결을 이루며 이동하거나 땡을 들고 먹이를 주는 관광객들과 어울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2월 10일에 평소처럼 산책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다. 호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수백마리의 야생오리들이 물놀이를 하며 장난치고 있었다.” 고 사진애호가 손립강이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야생오리는 수금(水禽)류에 속하며 흐르는 물에서만 서식하며 먹이를 찾는다. 이곳엔 상류에 수력발전소가 있어 추운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다.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오는 야생오리들이 일찌기 이곳에 ‘눈독을 들이면서’ 철새 ‘전두부대’의 가장 리상적인 목적지가 되었다.

왕청현 천교령립구에도 ‘봄을 알리는 새’인 태평조(太平鳥)가 찾아왔다. 수백마리의 태평조들이 주민구역의 인동수(忍冬樹)에서 열매를 먹고 동지를 틀었다. “아마도 수량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한무리의 태평조들이 나무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은 아주 장관이다. 많은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모멘트에 올린다.”

련일, 훈춘시 경신습지에서는 많은 땡금(猛禽)류들이 먹이를 찾아 발걸음을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흰꼬리참수리, 참머리참수리, 독수리 등 희귀한 땡금류들이 앞다투어 모습을 드러내 전국 각지의 사진애호가들이 이곳에 모여 촬영을 시작했다. “기운이 오른 탓인지 올해는 참수리와 독수리가 레전보다 일찍 찾아왔다. 며칠전에는 습지가에 당지의 사진애호가들이 몰렸는데 요즘은 외지의 사진애호가들도 속속 도착했다.” 고 훈춘시의 사진애호가 고비가 말했다.

현재, 습지에는 이미 많은 크고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있다. 사진애호가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새들을 관찰하면서 때때로 셔터를 눌러 새들이

춤추는 멋진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훈춘시 경신습지는 중국, 로씨야, 조선 3국 접경지대의 경신평원내에 위치해있으며 강과 하천이 관통하고 호수가 밀집되어있으며 야생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여 수많은 철새들의 리상적인 이동, 번식, 서식지이다. 매년 참수리, 흰꼬리참수리, 북극갈매기, 은갈매기, 씨비리독수리, 기러기 등 귀중한 새들을 맞이한다.

“작은 동물들이 온다는 것은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 원앙, 추사오리 등 철새 ‘대부대’들도 돌아와서 이곳에서 서식할 것이다. 그들이 움에 따라 습지는 활기를 띠고 봄도 ‘깨운다’.”고 고비가 말했다. / 길림일보

천지사회구역 위생계획출산사업의 새 모식 추진



화룡시 광명가두 천지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공거공학(共居共学), 공간공향(共建共享), 공사공락(共事共乐), 같이 노래 부르기(同唱一首歌), 같이 춤추기(同跳一支舞), 같이 밥 먹기(同吃一桌饭), 같이 명절 쇠기(同过一个节)’ 등 3공4동의 사회구역을 힘써 건설하고 위생, 계획출산에 대한 관리와 봉사 수준의 향상을 시작으로 봉사체계를 보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인구와 계획출산의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기중 정책의 ‘선전원’과 군중사업의 ‘종업원’이 되어 위생, 계획출산의 전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

천지사회구역은 새로운 형세에서

위생, 계획출산 사업의 정책법규, 관리방식, 해민정책 등 사업 내용을 둘러싸고 일상화 위생, 계획출산 사업 업무교육훈련회를 개최하며 사회구역의 간부, 격자원들이 위생, 계획출산 사업에 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업무 절차를 숙지하게 하여 위생, 계획출산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건실한 리론적 토대를 다졌다. 사회구역의 ‘새시대문명실천소’, ‘당원군중봉사중심’, ‘반사기장량’ 등 장소에 의탁하여 ‘의료양로결합’의 의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여 사회구역의 로인들을 위해 건강강좌, 애심진료, 지식선전 등 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관할구역 자원봉사 대오의 우세에



의탁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정비’, ‘관할구역의 로인을 사랑하자’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관할구역의 로인들을 방문하여 지식강좌를 전개하고 로인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주거환경 위생정비활동을 전개하며 관할구역의 복도 비법 광고물 제거, 복도 위생 청소를 진행하여 공동 거주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켰다.

은, 오프라인 선전과 특별 강좌 등 방식으로 세계 ‘금연일’과 같은 활동일에 위생, 계획출산 사업의 최신 정책 동태를 적극 선전하고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과학육아’, ‘건강보전’과 ‘에이즈 예방’, ‘흡연유해’ 등 건강교육강의를 보급하여 주민들이 계획출산에 관한 보건지식을 리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생, 계획출산의 봉사선전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게 했다.

금후 천지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요구를 공공위생건강 봉사사업에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고 새시대문명실천소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여 군중들에게 편리를 주는 다양한 형식의 새시대 문명실천 활동을 조직하고 착실한 봉사로 관할구역 주민의 행복감, 안정감, 획득감을 제고시키며 ‘자치+공치’의 리념하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생활 리념을 수립하도록 여러 민족 주민들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 정현관기자

연변주부녀연합회

여성들의 힘을 모아 고품질 발전 조력

2023년,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사업의 주선으로 인도, 봉사, 려계의 기본 직능을 성실히 리행하고 광범한 녀성들을 단결, 인솔하여 연변의 진보와 도약을 추동하기 위해 녀성들의 힘을 공헌했다.

주부녀연합회는 시종 조직의 정치성, 선진성, 군중성의 제고를 각항 사업의 최우선 임무로 삼고 포부의 부축을 우선으로, 자혜의 부축을 중점으로 견지했다. 사상을 전환하고 자신감을 제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선진육성, 전형수립, 기지수립을 통해 당의 말을 듣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르도록 광범한 녀성들을 교육, 인도했다. 주부녀연합회는 선후로 전국 및 성급 3.8 홍기수 17명, 전국녀결건공 표병 2명, 전국녀결문명일러 4개, 전국녀결선진집체 1개, 전국 권의 수호 선진집체 3개와 선진개인 2명을 선출하고 주 제 7기 ‘10대 녀결’을 선정했으며 주 3.8 홍기수(집체) 41개를 선정했다.

주부녀연합회는 ‘연변주민박녀주인창업련맹’과 ‘녀결과학기술농업조력단’(巾帼科技助农团)에 의탁하여 ‘깨끗한 집 가꾸기’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변경촌 ‘가장 아름다운 녀결 민박’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5.1절’과 ‘국경절’ 기간에만 연인수로 4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맞이했다. 녀결과학기술농업조력통차(巾帼科技助农直通车)와 녀결변경조력활동(巾帼边行行动)을 18차 전개하고 전 성 ‘녀결변경조력(巾帼边行)’사업 현장주진회를 주관하였으며 자원과 힘을 융합하여 변경촌에 농업기술 지도, 의료하향, 산업계획, 창업부화 등 ‘메뉴식’ 봉사를 제공하고 각종 공익금과 물자를 55만여만원 쟁취했다. ‘길림 세 자매’ 대상을 확장하여 귀향창업 녀성 142명을 확보하고 치부인술자 87명을 육성하여 향촌 녀성 사업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했다.

2023년이래, 주부녀연합회는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새로운

사로를 넓히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건설과 우수한 가풍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가정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하며 고양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했다. 2023년에 주급 ‘가장 아름다운 가정’ 55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1가구가 성급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선정되고 2가구가 전국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연변의 흥색문화를 이야기하고 고향의 변화를 레찬하는 등 형식으로 친자독서활동과 친자가족문화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투계로 4여만가구를 참여시켰다. 청년들의 친목활동을 주최하고 새시대 결혼관, 출산관, 가족관에 관한 선전과 인도를 혁신했다.

여러 부문과의 협력, 다방면의 참여, 여러 담체가 운행하는 녀성권의 수호 및 사회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녀성에게 법률보급선전, 법률자문, 위문사랑 등 봉사를 제공하여 인심을 따뜻하게 하고 인심을 모으며 인심을 안정시키는 권익수호 봉사사업을 원전에서 시작하고 기중으로 전개하며 광범한 녀성들의 마음에 들도록 했다.

2023년, 주부녀연합회는 부녀아동사업위원회 성원단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두가지 계획’이 착지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했다. 전 주 각급 녀성법률구조소는 사법부문에 14개의 사법구조사건에 관한 단서를 전달하고 27건의 법률구조 신청을 전달했으며 15명에게 18만 5,000원에 달하는 사법구조금을 지급했다. 전 주 1,278개 녀성권의수호 인민조정소에서 4,817건의 혼인가정 분쟁 신고를 접수하고 1,459건을 해결했다. 1,006명의 적령기 녀성들에게 ‘두가지 암’에 관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두가지 암’에 걸린 67명의 저소득 녀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했으며 80여만원의 지원 물자를 마련하여 1만여명의 어려운 녀성들을 도왔다.

/ 길림일보

매하구시 ‘조소반’컵 화투놀이시합 및 3.8절 경축행사 성황리에



3월 7일 오전 9시, 매하구시 제 1회 ‘조소반’(朝小拌) 컵 화투놀이시합 및 3.8절 경축행사가 매하구시민족문화관에서 펼쳐졌다.

이번 활동은 매하구시민족문화관에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며 매하구시조선족 군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특별 조직하였는바 시급 지도자들의 지지와 관심, 조선족 군중 및 민족, 회족 등 기타 소수민족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하구시만보성시품유한회사의 협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문공토특약기자